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 -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10대그룹 사장 호남출신은? ▶2 | 남구청 '미숙 행정' 도마에 ▶7 | 오랜된 아파트의 깜짝 변신 ▶12 | 캐나다 환상의 오로라 여행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23호 1판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음력 1월 5일)

호남인사 '0'…대통합 물건너 가나

새정부 1차 조각 지역민심 불만…향후 장관·靑 인선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조각(組閣) 결과를 지켜본 지역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호남 인맥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혹시나 했던 국민대통합이 역시나로 끝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호남 소외'가 계속되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차 조각에서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의 의지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17부 3처 17청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남 인맥을 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박 당선인의 2차 조각과 청와대 인선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 민심은 그동안 거론됐던 '호남 총리'가 무산된 만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부처 장관에 호남 인맥이 중용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었던 청와대와 지역 민심과의 소통 창구도 대폭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핵심 부처 장관 후보군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1차 조각이 지역 안배보다는 전문성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2차 인선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대통합의 명분에 따라 상징적으로 일부 부처 장관에 호남 인맥이 기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많아야 장관 1~2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1~2명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박 당선인이 북한의 핵 실험 국면과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을 통해 국론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인사대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진심에 호남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지역 갈등 등 고질병이 해소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관계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호남에 사실상 '겨울공화국'이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교훈 삼아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조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학 새내기 연못속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이다. 1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연못에서 경영대학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정부 6개 부처 장관 지명

교육 서남수 외교 윤병세 법무 황교안 국방 김병관 안전 유정복 문화 유진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정부의 교육장관에 서남수 현 위덕대 총장, 외교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3선 유정복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관련기사 3·4면〉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부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 명단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와 무관한 6개 부처가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14일 또는 18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영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해결돼야 다음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발표된 2차 인선에서는 애초 예상과 달리 청와대 비서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고려한 외교안보 내각 인선을 넘어서 교육·법무·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까지 발표하면서 '깜짝 인선'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부분 관료 출신이어서 관료를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장관 내정자 6명 가운데 윤병세·김병관·서남수·유진룡 내정자 등 4명은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공직을 떠난 인사여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유정복 내정자는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인선 돼 친박계 인사의 청와대 및 내각 행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일부 장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12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정상 출범 여부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

유정복 안전

유진룡 문화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北核 유탄

3차 핵실험 여파 구성 차질

광주시가 UN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계획이 북한의 3차 핵실험 파장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U대회 첫 남북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UN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과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세부사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U대회 조직위는 남북단일팀 구성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U대회 4대 레거시(유산)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남북단일팀 구성을 U대회의 핵심 이벤트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2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U대회 남북단일팀 추진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남북단일팀 구성을 주도해 온 UN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UN과 북한과의 관계도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UN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조치와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세가 장기화로 접어들 경우 인류 화합과 평화 도모가 목적인 '스포츠 교류'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이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등을 풀기 위해 대화모드로 급전환하고,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에 나선다면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 등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광주·전남 지자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軍, 北 전역 타격 미사일 실전배치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필요시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며 "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4500t급)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000㎞의 함대지 미사일과 214급(1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월 15일(금)
입학문의 062)605-1112 062)605-1023